

2025. 12.
Vol.90

APi *Blue*note

블루노트 통계 Statistics



2024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주요 지표 결과¹⁾

유민상 선임연구위원
이경상 선임연구위원
서고운 연구위원

요약

조사목적 이 조사는 국가승인통계조사로 매년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인권실태 및 변화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음. 이 조사의 결과는 아동·청소년의 삶의 질과 권리 수준 증진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음.

조사대상 ▶전국 초등학교(4~6학년), 중학교(1~3학년), 고등학교(1~3학년)에 재학 중인 아동·청소년
▶조사 참여자 8,759명

조사방법 학교 방문 대면조사 및 일부 우편조사 병행

조사기간 2024년 5월~6월 (조사주기: 1년)

비 고 국가승인통계 제402001호

1) 본 블루노트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24년 연구과제인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총괄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발췌·요약한 것임.

1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개요

-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국가승인통계 제402001호)」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진행하는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의 하나로 조사되고 있음.
- 이 조사는 유엔아동권리협약(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이행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조사되고 있으며, 주로 권리 상황 관련 아동·청소년의 경험과 인식을 조사하고 있음.
- 인권 지표 중 직접적인 조사가 필요한 영역에 대해 초등학교에서부터 고등학생까지 조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2009년부터 국가승인통계 제402001호로 지정되어 매년 작성됨.
 - 이 지표들은 2009년부터 시행이 되었으나, 2013년과 2017년의 개편을 통하여 수정, 변경된 바 있음. 따라서 시계열적 추이를 살펴볼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음.
 - 조사 결과는 본원의 보고서로 매년 발간되며,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KOSIS)과 마이크로 데이터 통합서비스(MDIS)에서 지표와 원데이터를 공개하고 있음.
-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국가승인통계 제402001호)」의 주요 조사 영역은 유엔아동권리협약 권리 클러스터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아동·청소년 중심으로 권리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음.²⁾
- 이번 이슈 페이퍼는 보고서가 담고 있는 클러스터 중 5개 클러스터 결과를 제시하였으며, 새롭게 디지털 환경과 기후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였음. 이 이슈페이퍼에서 제시하고 있는 권리 클러스터는 다음과 같음.³⁾
 - 일권일반 및 일반원칙: 인권 관련 협약 인지도
 - 시민적 권리와 자유: 아동·청소년 참여권 보장 수준 및 참여가 어려운 이유
 - 폭력 및 학대: 가정과 학교에서의 폭력 피해 경험(체벌)
 - 장애, 기초 보건 및 복지: 운동 실천율, 자살에 대한 생각 정도
 -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 학업중단 생각 여부 및 이유
 - 기타(일반논평): 디지털 환경에서의 권리 보장, 기후환경에서의 권리 인식

2 인권일반 및 일반 원칙

-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한 나라(협약 당사국)는 본 협약의 원칙과 규정을 성인과 아동 모두에게 널리 알릴 의무가 있음. 아동·청소년들이 유엔아동권리협약과 국가인권위원회를 얼마나 알고 있는지에 대해 매년 측정하고 있음

2) 지표의 전체적인 내용과 결과 확인을 위해서는 원 보고서를 참고:

· 유민상, 이경상, 서고운, 유선희, 유성열(2024),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총괄보고서,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유민상, 이경상, 서고운, 유선희(2024),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기초분석보고서,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3) 유엔아동권리협약 번역문은 국제아동인권센터(InCRC)의 번역본을 활용하였음

제42조 (협약을 널리 알릴 국가의 의무)

당사국은 적절하고 적극적인 수단을 통하여 본 협약의 원칙과 규정을 성인과 아동 모두에게 널리 알릴 의무를 가진다.

- 우리나라 아동·청소년 중 68.8%는 유엔아동권리협약(UNCRC)에 대해 들어본 것으로 나타났음. 하지만 '이름도 들어봤고 어떤 것인지도 알고 있다'는 비율은 20.0%로 비교적 낮게 나타남. 이 비율은 수년째 비슷한 비율을 보이고 있어 정부의 개선 노력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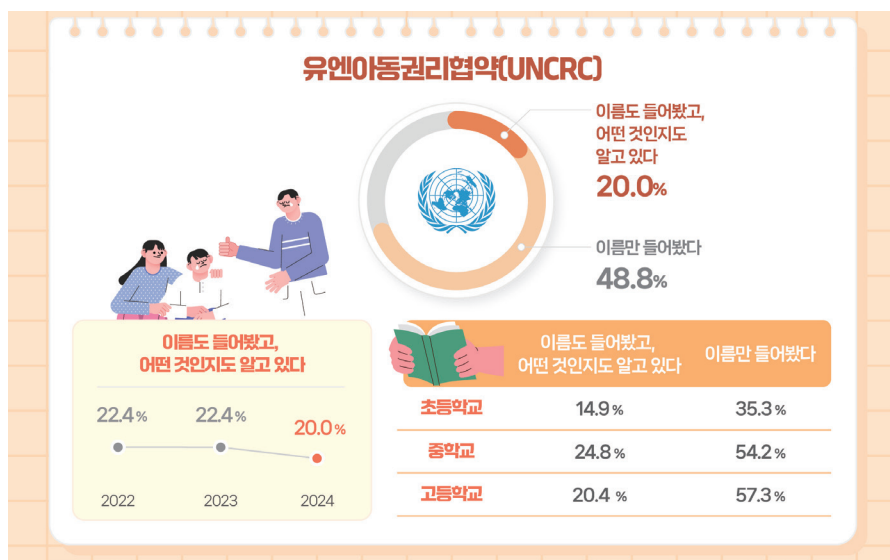


그림 1 유엔아동권리협약(UNCRC) 인지도(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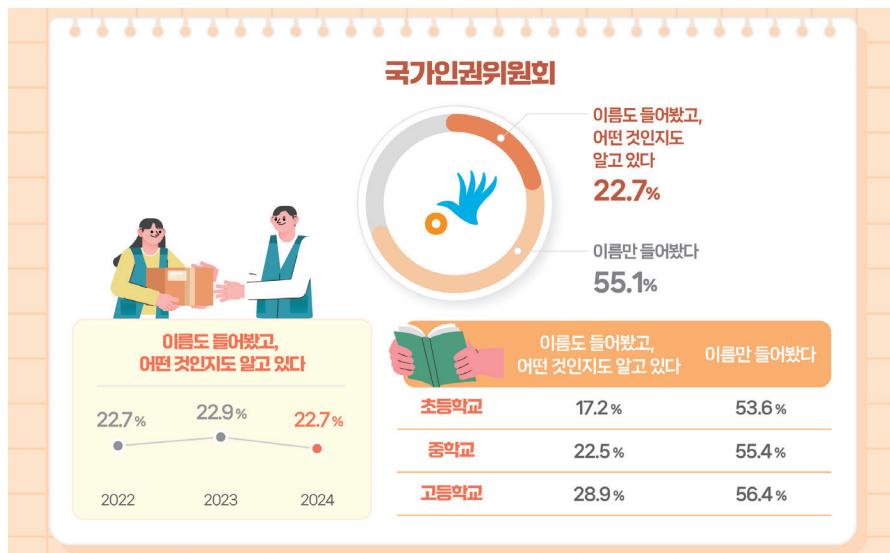


그림 2 국가인권위원회 인지도(2024)

3 시민적 권리와 자유

- 유엔아동권리협약 당사국은 아동·청소년이 본인에 대해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를 보장해야 함. 또한 사법적 행정적 절차에 참여하여 목소리를 낼 기회를 제공해야 함.

제12조 (아동의 견해 존중)

- ① 당사국은 자신의 견해를 형성할 능력이 있는 아동에 대하여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를 보장하며, 아동의 견해에는 아동의 연령과 성숙도에 따른 정당한 비중이 부여되어야 한다.
- ②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아동에게는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사법적·행정적 절차에서도 직접 또는 대리인이나 적절한 기관을 통하여 진술할 기회가 국내법적 절차에 합치되는 방법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 아동·청소년에게 우리 사회는 아동과 관련된 일을 결정하고 해결하는 과정에 아동의 의견을 듣고 아동이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물었을 때 72.1%는 아동·청소년의 참여권이 보장되고 있다('매우 그렇다' + '그런 편이다' 합산 비율)고 응답하였음.
- 초등학교생은 84.5%, 중학생은 71.1%, 고등학생은 60.1%가 참여권이 보장되고 있다고 응답함. 아동·청소년들은 청소년들의 참여가 어려운 이유로 '시간을 내기가 어렵다(37.3%)', '청소년을 미성숙한 존재로 보는 사회의 편견 때문이다(25.9%)',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활동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21.2%)' 등을 꼽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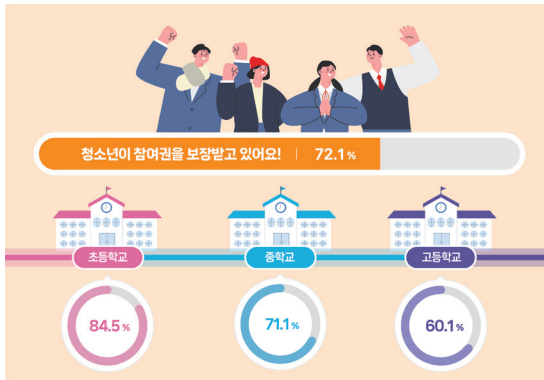


그림 3 아동·청소년 참여권 보장 수준(2024)



그림 4 아동·청소년의 참여가 어려운 이유(2024)

4 폭력 및 학대

- 유엔아동권리협약 당사국은 아동·청소년이 가정, 학교, 지역사회, 온라인 등의 환경에서 모든 형태의 폭력 및 학대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 조치를 취해야 함.

제19조 (모든 형태의 폭력 및 학대로부터의 보호)

- ① 당사국은 부모나 법정대리인, 기타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는 동안 모든 형태의 신체적 정신적 폭력, 상해나 학대, 방임 또는 방치하는 대우, 성적 학대를 포함한 가혹한 처우나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 행정적 사회적 및 교육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 ② 이러한 보호조치는 아동 및 양육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사회계획의 수립과 본 조 제1항에 규정된 아동학대 사례에 대한 다른 형태의 예방은 물론, 학대 사례를 확인, 보고, 조회, 조사, 처리, 추적하고 적절한 경우 사법적 개입이 가능한 효과적인 절차가 포함되어야 한다.

- 부모님으로부터 신체적인 벌을 1년에 한 번 이상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아동·청소년은 전체의 25.6%였음. 1주일에 한두 번 이상 체벌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아동·청소년은 초등학교 2.5%, 중학생 0.8%, 고등학교 0.3%였음. 학교 선생님으로부터 1년에 1회 이상 체벌을 받는다고 응답한 아동·청소년은 5.1%였음.
- 가정 내 방임은 ‘밤늦게까지 부모님(보호자) 없는 집에 있었던 경험’을 초등학교에게 물었을 때 53.1%의 초등학교생이 그런 경험이 있었다고 응답하였음. 이는 맞벌이 증가 등으로 아동에 대한 돌봄 공백이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줌. 가정 내 방임 경험률은 비교적 낮게 나타나지만 최근 3년간 증가 추세에 있어 관심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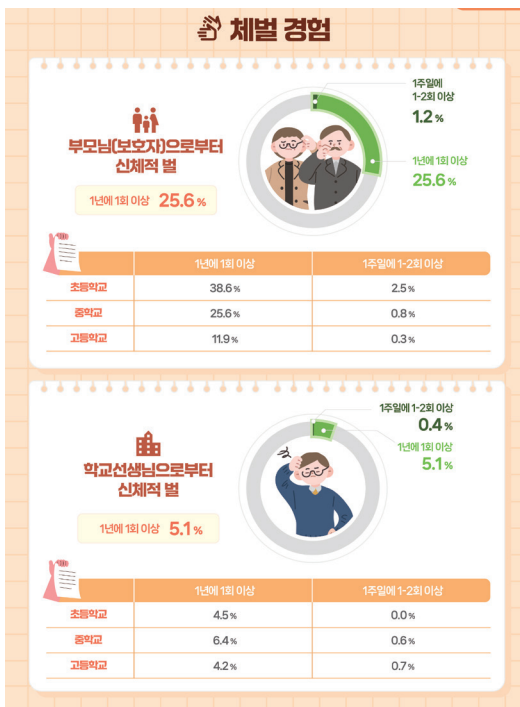


그림 5 가정과 학교에서의 체벌 경험(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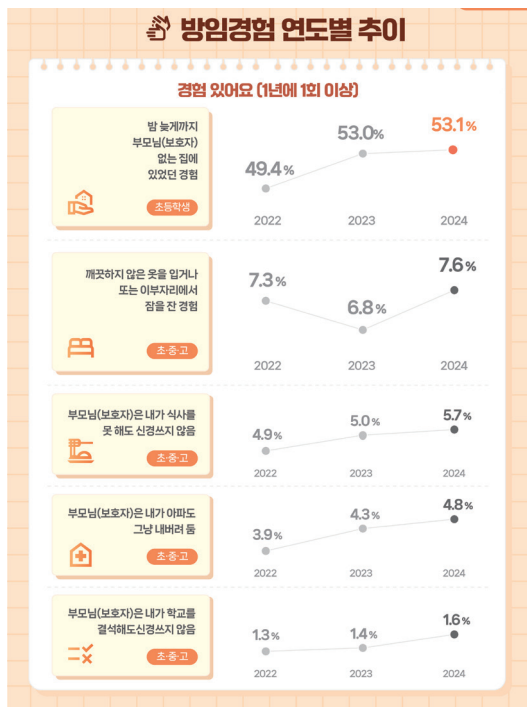


그림 6 가정 내 방임 유형 및 정도(2024)

5 장애, 기초 보건 및 복지

- 유엔아동권리협약 당사국은 아동·청소년이 최상의 건강 수준을 향유하고, 치료와 회복을 위한 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인정하고, 권리가 박탈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함.

제24조 (아동의 건강을 보장할 국가의 의무)

- 당사국은 아동이 최상의 건강 수준을 향유하고, 질병의 치료 및 건강 회복을 위한 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인정한다. 이와 관련해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에 관한 아동의 권리가 박탈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 당사국은 이 권리의 완전한 이행을 추구해야 하며, 특히 다음의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생략)
- 당사국은 아동의 건강에 유해한 전통 관습을 폐지하기 위해 모든 효과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당사국은 본 조에서 인정하는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점진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국제협력을 증진하고 장려해야 한다. 이 문제에 있어서 개발도상국의 필요를 특별히 고려해야 한다.

- 아동·청소년들의 건강을 위한 운동 실천율(일주일에 1~2회 이상)은 62.0%로 남학생은 72.4%, 여학생은 50.9%로 나타남. 운동 실천율의 남녀 격차를 줄일 필요가 있음.
- 최근 아동·청소년들의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아동·청소년들 중 죽고 싶다고 생각해보는 적이 있는 비율은 30.8%로 남학생은 22.9%, 여학생은 39.1%였음.
 - 죽고 싶다고 생각한 이유는 학업문제가 40.5%, 미래(진로)에 대한 불안이 19.8%, 가족 간의 갈등이 19.2%, 선후배나 또래와의 갈등이 7.1%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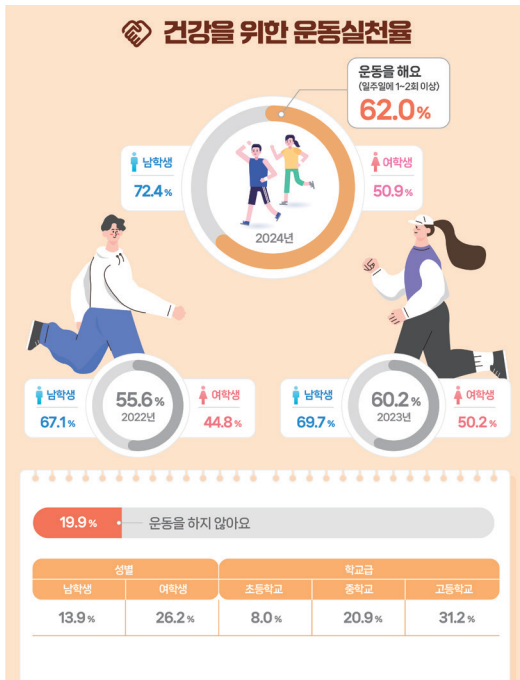


그림 7 건강을 위한 운동실천율(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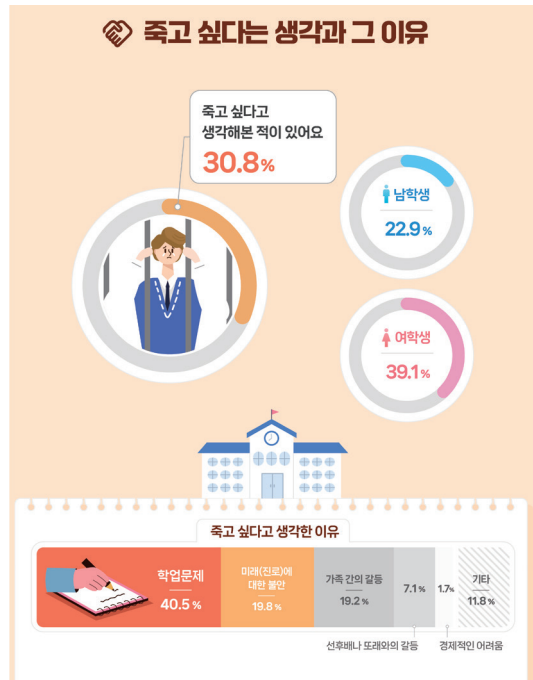


그림 8 죽고 싶다는 생각과 이유(2024)

6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

- 유엔아동권리협약 당사국은 아동·청소년이 교육받을 권리를 인정하고, 이 권리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 또한, 학교 규율이 아동의 인간 존엄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운영되도록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책무가 있음.

제28조 (교육)

- ① 당사국은 아동의 교육 받을 권리를 인정하며 기회균등에 근거하여 이 권리를 점진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특별히 다 음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초등교육은 모든 사람에게 의무적이고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2. 일반 및 직업교육을 비롯한 여러 형태의 중등교육 발전을 장려하고 모든 아동이 중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무 상교육 도입 및 필요시 재정적 지원 제공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모든 사람에게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가 개방되도록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4. 모든 아동이 교육 및 직업에 관한 정보와 지침을 이용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5. 학교 출석률 및 중퇴율 감소를 장려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② 당사국은 학교 규율이 아동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본 협약을 준수하는 방향으로 운영되는 것을 보장 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아동·청소년의 29.6%는 학교를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근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보임. 아동·청소년에게 학교를 그만두고 싶은 이유에 대해 물어본 결과 공부하기 싫어서(25.1%), 귀찮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서(24.8%) 등 순이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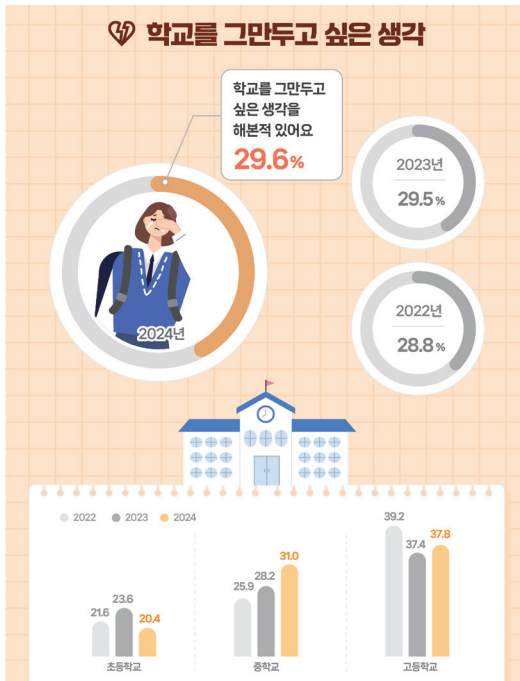


그림 9 학교를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 여부(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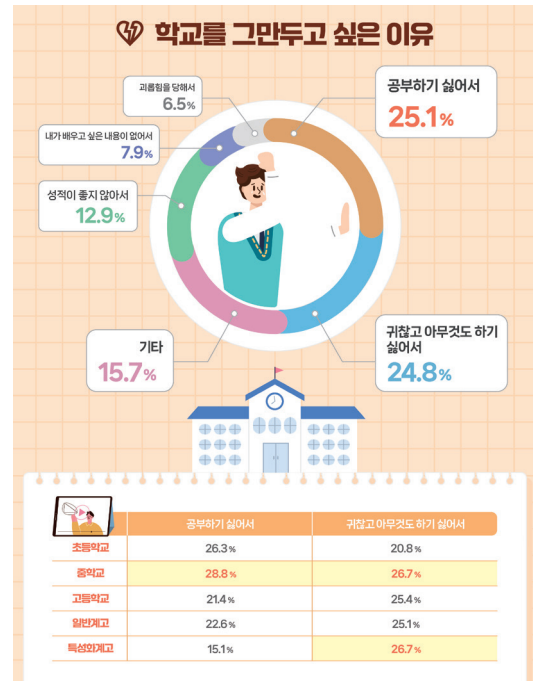


그림 10 학교를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한 이유(2024)

-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최근 일반논평을 통해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권리(제25호), 기후변화에 초점을 맞춘 환경에서의 아동권리(제26호)에 대해 강조하였음.
- 디지털 환경에서 피해에 대해 걱정하는 청소년의 비율은 '온라인 상에서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이 유출되는 것이 걱정된다' 62.8%, '온라인 상에서 사진, 동영상 등이 유출되는 것이 걱정된다' 60.6%였음. 이에 비해 '온라인상에서 피해를 당했을 때 도움을 받을 곳을 알고 있다'는 응답은 70.0%로 청소년 10명 중 3명은 온라인 상에서의 피해에 대처할 정보가 부족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기후변화와 환경권에 대해 '기후 변화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다' 81.0%, '기후변화가 나에게 주는 영향이 심각하다' 57.2%였음. 이에 비해 '학교에서의 기후변화 교육은 충분하다'는 61.1%로 개선의 여지가 있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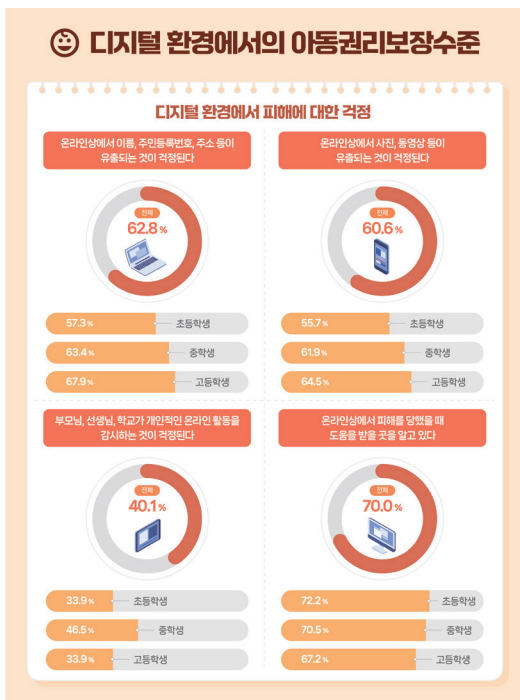


그림 11 디지털 환경에서의 피해 걱정(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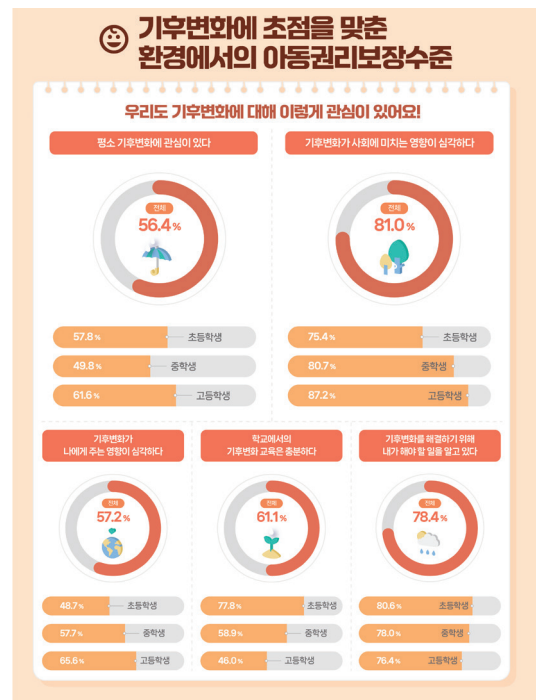


그림 12 기후 변화에 대한 관심 정도(2024)